



190 HARPER'S BAZAAR December 2016



Manuel Alvarez Diestro

나는 지금 서울 경복궁 근처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과 런던에서 보낸다. 스페인 산탄데르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뉴욕, 마드리드, 파리, 베이루트, 알제, 요하네스버그, 카사블랑카, 카이로, 런던 등 여러 도시에서 살았다. 요즘은 주로 아시아를 여행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텐진, 싱가포르, 상하이, 후쿠오카, 요코하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시는 인간으로서의 도전을 나타내는 메타포다. 나는 거대한 규모의 택지 개발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땅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작업을 한다. 사람들이 나의 사진을 통해 인간이 주택이나 기반 시설을 건설할 때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식할 수 있길 바란다. 서울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변화를 거듭했고, 그러한 풍경을 '신도시' 시리즈에 담았다. 신도시가 품고 있는 신비로움과 모호함,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초현실주의적인 세계를 포착하고자 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건축이나 발전을 즐기기도 하지만, 작업에는 인간으로서의 불안감과 분노, 모순적인 감정이 자연스레 담기게 된다.

아름다운 풍경은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완성된 빌딩보다는 지어지고 있는 빌딩이 더 아름답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을 많이 보여주셨다. 그 영향 탓인지, 요즘도 나는 건설 현장에서 영감을 받는다. 건축의 과정은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키지만, 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곧 마법을 잃는다. 지나친 화장은 도시의 역동성을 숨긴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한강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러한 규모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본 적이 없다. 강의 양방향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도시를 즐기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영화적 경험이다. 한강의 다리들을 촬영한 'Bridge' 시리즈는 서울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보는 풍경을 다른 시각과 빛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다리와 같이 도시를 잇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대한 구조물들은 엔지니어에 의해 '이성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나는 단단한 콘크리트 기둥 앞에서 오래된 성당이나 절 같은 신성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기능적으로 구현된 형태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쪽인데, 한강 다리는 이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풍경을 담은 것을 좋아한다. 도시에서 온전히 혼자가 되는 세계에 관심이 있다. 인왕산에 자주 간다. 인왕산의 바위는 일출과 일몰 시간에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완벽한 발코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며 한스 짐머(Hans Zimmer)가 작곡한 <인터스텔라(Interstellar)>나 M83의 <오블리비언(Oblivion)> 같은 SF 영화 OST 앨범을 듣기도 한다. 이런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면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서울을 탐험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BGM이다.